

# 김효주, 11년 만의 LPGA 투어 파운더스컵 제패

### 4라운드 벨리 코르다 맹추격 이겨내고 1타 차 승리 와이어 투와이어 우승...1년 만에 통산 8승째 달성

##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한국선수 우승 일지

연도	선수	대회
2023년 이후	고진영	HSBC 월드 챔피언십 파운더스컵(2승)
	유혜란	월마트 NW아킨스 챔피언십
	김효주	어센던트 LPGA
	양희영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2024년	양희영	KPMG 여자PGA 챔피언십
	유혜란	FM 챔피언십
	김아림	롯데 챔피언십
2025년	김아림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김효주	포드 챔피언십
	유혜란	블랙데저트 챔피언십
	임진희·이소미	다우 챔피언십
	황유민	롯데 챔피언십
	김세영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미향	블루베이 LPGA
2026년	김효주	포터넷 파운더스컵



김효주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터넷 파운더스컵(총상금 300만달러)에서 우승했다.

김효주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샤론하이츠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6천54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5개로 1오버파 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6언더파 27타를 기록한 김효주는 2위 벨리 코르다(미국)를 1타 차로 제치고 지난해 3월 포드 챔피언십 이후 1년 만에 투어 8승째를 달성했다.

2015년 이후 11년 만에 이 대회 패권을 탈환한 김효주는 우승 상금 45만달러(약 6억7천만원)를 받았다.

이번 대회 1-4라운드 내내 1위를 놓치지 않고 와이어 투와이어 우승을 거둔 김효주는 다음 주 포드 챔피언십에서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

김효주는 3라운드까지 2위 코르다에게 5타나 앞서 있었다.

그러나 전반 9개 홀에서 버디와 보기를 2개씩 맞바꾸며 타수를 줄이지 못했고, 이 사이 2인 1조로 동반 플레이를 한 코르다가 전반에만 4타를 줄이며 매섭게 따라붙었다.

결국 10번 홀(파5)에서 코르다가 버디를 잡아내며 공동 선두에 올라 우승 향방은 안개 속으로 빠졌다.

김효주와 코르다의 매치 플레이 양상으로 흐른 후반에서 김효주는 곧바로 11번 홀(파4) 버디로 다시 1타 차 단독 1위를 되찾았고, 14번 홀(파



23일 열린 LPGA 투어 포터넷 파운더스컵 마지막 날 김효주가 챔피언 퍼트를 성공시킨 후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4)에서 4m 정도 버디 퍼트를 넣고 2타 차로 만들었다.

김효주는 13번 홀(파3) 그린 주위에서 시도한 칩샷이 깃대를 맞았으나 멀리 튀지 않아 파를 지켰고 1타 차 선두였던 17번 홀(파3)에서도 러프에서 친 두 번째 샷을 홀 가까이 붙이면서 파세이브에 성공했다.

코르다의 17번 홀 짧은 파 퍼트가 어이없이 빗나가며 김효주는 다시 2타 차 리드를 안고 마지

막 18번 홀(파5)로 향할 수 있었다.

김효주는 18번 홀에서 벙커에 두 번이나 공을 보내며 고전했으나 보기로 막아 1타 차 우승을 확정했다.

2014년 LPGA 투어 비회원 자격으로 나간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첫 승을 따낸 김효주는 신인 시절인 2015년 이 대회에서 회원 자격으로 LPGA 투어 첫 우승을 달성했다.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열린 레이디스 유러피언투어(LET) 아람코 챔피언십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우승컵을 품어 안았다.

또 지난 8일 중국에서 열린 블루베이 LPGA 이미향에 이어 한국 선수가 2개 대회 연속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김세영과 임진희가 11언더파 27타, 공동 3위에 올랐고, 유혜란은 10언더파 28타로 공동 5위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준남기협회가 주관한 광주시 청소년 생활체육 클럽대항전 준남기대회 모습. <광주시체육회 제공>

## ‘시민 누구나’ 일상 속 생활체육으로 활력 충전

### 빛고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본격 시동...광주시체육회, 준비 만전

새 봄을 맞아 빛고을 생활체육이 힘찬 기지를 건다.

광주시체육회는 23일 “건강한 에너지로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주는 2026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오는 28일 ‘제9회 광주시협회장배 생활체육 북상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에서는 육상, 검도, 테니스 등 총 45개 종목에 80여 개 대회가 예정됐다. 특히 4월

에는 배구, 족구, 배드민턴, 주짓수, 탁구 등 13개 종목의 대회가 열리며 ‘가족사랑 걷기대회’와 ‘마라톤 대회’ 등 대규모 시민참여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어 5월과 6월에는 당구, 국학기공, 소프트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이 이어지며 생활체육 참여 열기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종목의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지역 내 생활

체육대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종목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생활체육은 시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대회가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민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 올해 전남스포츠클럽체육대회 영광서 열린다

### 도내 36개 스포츠클럽 1천여명 참가

전남 도내 스포츠클럽간 화합과 교류의 장인 ‘제2회 전남스포츠클럽체육대회’가 올해는 영광군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목포에서 전남 최초 스포츠클럽 종합대회인 ‘제1회 전남스포츠클럽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지역을 바탕으로 전남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20일 ‘제2회 전남스포츠클럽체육대회’ 개최지로 영광군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

제2회 전남스포츠클럽체육대회는 오는 10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되며, 도내 공공 및 지정 스포츠클럽 36개소(종합형 19개, 한종목 17개소)



에서 1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4천만원(도비)보다 대폭 증액된 7천만원(도비 5천만원, 군비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내실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체육대회는

스포츠클럽 간 유기적 교류를 확대하고 결속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물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전남 체육 생태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 ‘다시, 뜨겁게 Always KIA TIGERS’

### 특별한 혜택 가득...KIA, 2026 팬북 발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6시즌의 새로운 각오를 담은 팬북(사진)을 발간했다.

이번 팬북은 올 시즌 캐치프레이즈인 ‘다시, 뜨겁게 Always KIA TIGERS’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표지로 담아냈으며, 우승을 향한 의지와 염원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본문에는 선수들의 개인 화보와 더불어 새 시즌을 맞이하는 선수 개개인의 다짐을 담은 한마디가 담겼다. 다양한 읽을거리도 풍성하게 구성했다.

이범호 감독의 시즌 구상, 각오를 담은 인터뷰를 시작으로 지난 시즌 팬들의 사랑을 받은 김호영-오선우의 심층 인터뷰가 수록됐다. 또한 좌완 에이스 계보를 잇는 현재와 미래인 양현종-이여리의 인터뷰와 신인선수들의 패기 넘치는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다.



팬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마련됐다.

팬북 구매자에게는 전상현·이준영, 김호영, 성영타의 모습이 담긴 투명 포토키트 3종 중 1종을 무작위로 증정한다.

2026시즌 팬북의 판매 가격은 1만5천 원이며, 은오프라인 티스토리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매장에서는 오는 27일부터 먼저 만나볼 수 있으며,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홀 개막전이 열리는 4월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주홍철기자

## KIA, 퓨처스리그 홈 개막전 챌린저스필드가 달아오른다

### 내일 오후 1시, 셔틀버스운행·치어리더 응원전·경품이벤트 ‘풍성’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오는 27일 오후 1시 함평 챌린저스 필드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퓨처스리그 홈 개막전을 맞아 ‘다시 뜨겁게’-BEGIN AGAIN의 타이틀을 걸고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퓨처스리그 홈 개막 이벤트로, 정규 시즌 개막 전부터 야구 열기를 끌어올려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타이거즈의 미래를 책임질 퓨처스 선수단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 선수들에게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한다.

챌린저스 필드에 호걸이 에어별룬이 설치돼 포토존으로 운영되며, 챌린저스 필드를 찾는 팬들에게 퓨처스 선수단 친필 사인이 들어간 스페셜 티셔츠와 페이퍼 스틱스를 웰컴 기프트로 제공한다.



경기 중에는 서 한국 응원단장과 치어리더 4명이 팬들과 함께 응원전을 펼친다. 치어리더 공연을 비롯하여 이날 교대 이벤트를 통해 선수단 친필 사인볼과 사인 모자를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팬들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미니 포토부스와 즉석 폴라로이드 인화 이벤트도 마련한다.

한편 KIA는 챔피언스 필드에서 챌린저스 필드를 왕복 운행하는 4인승 셔틀 버스 1대를 운행해 팬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며, 구단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주홍철기자